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4 Number 01 **01** 2016



유신론적 진화론 6

다중 격변론

창조와 멸종이 반복될 때마다 격변이 발생(2)

양승훈 교수(2006, 창조와 격변)가 주장하는 다중격변론은 '하나님께서 수십억 년 동안 진화의 순서로 창조와 멸종을 반복하시다가 인간을 창조하였는데 멸종시킬 때마다 노아홍수와 같은 격변을 일으키셨으며, 그 격변은 지구 밖에서 날라온 운석에 의해 발생했다'는 식의 진화론과 창세기를 타협시킨 이론이다. 지난 호에서 이 이론의 과학적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번에는 성경적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

다중격변론은 기본적으로 점진적 창조론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다루었던 점진적 창조론과 같은 성경적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실제로 그의 책 안에서 점진

1. 과학적으로 옳은가?
2. 성경 기록과 일치하는가?
3.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는가?
4.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가?
5. 다음 세대에겐 성경의 믿음을 전수했는가?

적 창조론을 창시한 휴 로스의 생각을 지지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1. 성경 자체에 언급이 있는가?

다른 류의 유신론적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다중격변론의 첫 번째 문제점은 인간 창조 이전에 수많은 격변이 있었다는 기록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창세기 1장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지구, 우주, 식물, 동물,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진화의 순서로 창조하셨거나 이 생물들을 다시 멸종시켰던 흔적 이 없다. 더군다나 멸종시킬 때마다 격변이 일어났다는 기록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다중격변이란 발상은 시작부터 성경과 무관하게 시작된 것이다. 지구가 겪은 적이 없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상상의 진화 역사를 주장하고자 만든 작품이다. 만약 저자가 주장하는 생물들을 멸종시킬 엄청난 격변이 수십억 년 동안 수없이 발생했다면 성경 어딘가에 이런 분위기가 감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전능하시며 선하신 분”임을 일관되게 선포한다. 그러나 다중격변론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했던 생물들을 대거 멸종시키는 잔인하고도 무의미한 일들을 수십억 년 동안 수없이 반복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했다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결코 조화를 줄 수 없다.

양 교수는 이 멸종의 문제점에 부담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책에서 “대규모의 멸종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쁠을까를 생각해보아야 한다(p. 536)”고 하며 대규모 멸종을 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멸종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탓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규모 멸종이 이렇게 문장 하나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가? 과연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멸종시키는 것이 보시기에 좋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실 때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자신이 창조한 것들을 쓸어버리시며 한탄하셨다

(grieved)고 말한다(창 6:7). 만약 그런 수많은 격변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까지 수십억 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한탄을 하셨어야 할까? 그리고 그런 한탄을 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다중격변론은 그 분을 방향성 없이 자신이 창조하셨던 생물들을 반복적으로 멸종시키는 시행착오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 다중격변론은 성경과 무관하게 시작한 이론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릴 수 없다.

3.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울리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그 피조물들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반복하셨다. 그분은 흠이 없이 거룩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좋았던 땅을 저주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자신의 형상인 인간의 범죄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고,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덩귀가 났으며,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홍수를 통해 인류를 쓸어버리고 이 세상은 더 악화된 상태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회복된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다중격변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인류의 죄악이 일어나기도 전에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물을 변형시킬 이유는 단 하나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한 부분에 아주 단호하다. 다른 유신론적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 다중격변론도 예외 없이 복음에 정면으로 부딪힌다.

다중격변론은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서 홍수 심판과 같은 격변이 인류의 탄생이나 죄악이 있기까지 수없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손상시키며 죄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인류와 동물들을 쓸어버렸던 단 한번의 홍수 심판 사건의 중요성도 약화시킨다.

저자인 양 교수도 자신의 범죄 이전에 격변이 일어난 것에 대한 자신의 이론에 부담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책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빌딩이 지진인 아니다(p. 535)”라는 표현을 인용하기도 했다. 즉 지진과 같은 재해의 근



본원인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엉뚱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인명피해는 일차적으로 지진 자체 때문이다.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빌딩이 무너지지도 않고 사람이 죽지도 않는다. 그리고 빌딩 없는 곳에서도 지진에 의한 쓰나미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났음을 알아야 한다. 다중격변론은 결국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도 상실시킬 뿐 아니라 완전하게 회복된 천국의 모습도 희미하게 만든다. 다중격변론은 성경과 무관하게 시작한 이론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복음과 조화를 이룰 리 없다. 오히려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진화론이 등장한 이래로 타협이론은 늘 존재해왔다. 다중격변론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문제는 이런 타협이론이 등장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예수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준다는 것이다. 1980년 진화론자들이 화석에서 진화에 필요한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런데 진화 순서로 창조되었다는 점진적 창조론을 만들었다. 지질학자들이 지층이나 화석이 오랜 세월이 아니라 엄청난 격변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중격변론을 만든 것이다.

교회가 유신론적 진화론을 수용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버린 것이다. 교회에서 성경이 사실이 아니어도 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도 지금 유신론적 진화론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자신의 이론을 받아들여야 다음 세대가 교회에 남는다고 거꾸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모르고 하는 소리다. 유럽과 미국의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교회가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였을 때,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 버렸다. 다중격변론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릴 것이다. 아래는 다중격변론의 요약이다.

1. 과학적으로 옳은가? No
2. 성경 기록과 일치하는가? No
3.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는가? No
4.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가? No
5. 다음 세대에게 성경의 믿음을 전수했는가? No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물질 속에 감춰진 지혜



94년 독일의 물리학자 플랑크(Max Planck: 1858-1947)는 최소 에너지로 최대의 빛을 내는 제품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흑체에 주목하게 되었다. 여기서 흑체(Black Body)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모두 흡수하는 흡수체를 말한다. 가시광선의 모든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검다. 이 흑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흑체복사(Blackbody-radiation)라 하며 이 에너지의 크기는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당시에 플랑크는 이 흑체 복사 에너지가 작은 에너지 덩어리로 전달되는 것으로 처음 생각해낸 사람이다. 그는 오늘날 물질계의 최소 에너지 단위로서 양자(quantum)라고 불리게 된 이 에너지 덩어리가 전자기복사의 주파수(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와 일정한 상수 값에 비례함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하면 흑체 복사 에너지는 그 물질의 고유상수와 주파수의 곱으로 계산되는데 그는 전자기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모든 물질계에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게 되었다. 즉 물질계에서 양자의 에너지는 그 양자의 주파수(ν)에 비례하는데 그 값은 일정 상수 값($h=6.626 \times 10^{-34}$ J.sec)의 배수임을 찾아낸 것이다. 이 상수가 소위 물질계를 지배하는 고유상수 또는 자연상수로 알려진 플랑크상수(Planck constant)이다.

이는 보다 높은 주파수의 양자가 그 만큼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



하는데, 20세기 초까지도 이 에너지 덩어리의 개념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당시 여러 과학자들이 전통적인 파동이론(wave-theory)으로 흑체복사를 설명하려고 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고, 1905년 아인슈타인이 빛을 금속 표면에 비추줄 때 전자들이 튀어나오는 광전효과 현상을 플랑크의 식으로 유도할 때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개념이었다. 이 덩어리 에너지 개념이 아인슈타인으로 하여금 빛과 전자기복사의 입자-파동의 이중성(dual)을 인정하도록 이끌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1899년 플랑크는 자유 공간에서 물질의 고유한 특성값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는 물리계의 5개 기본 단위를 제안하였다. 그는 5개의 기초 물리 상수(표1)들과 5개의 기초 물리 방정식(표2)으로부터 플랑크 길이, 플랑크 시간, 플랑크 질량

표1 / 기초 물리 상수

물리상수	상수 값
진공에서 빛의 속도(c)	299,792,458 m s ⁻¹
중력상수(G)	6.67428 x 10 ⁻¹¹ m ³ kg ⁻¹ s ⁻²
플랑크상수(h)	1.054571628 x 10 ⁻³⁴ Js
쿨롱상수(ke)	8,987,551,787.3681764 kg m ³ s ⁻² C ⁻²
볼츠만상수(kB)	1.3806504 x 10 ⁻²³ J K ⁻¹

표2 / 플랑크 단위 결정에 사용된 방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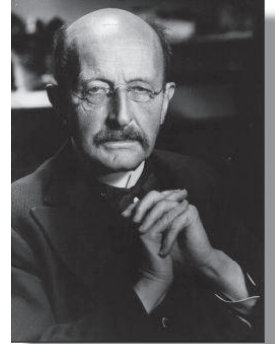
1) 진공에서 광속이 일정하다는 가정으로 플랑크 길이와 시간의 관계식.
2) 특수 상대성이론에 따른 질량과 빛의 속도(진공)로 플랑크 에너지식.
3) 일반 상대성이론과 만유인력 법칙으로 두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식.
4) 빛의 속도와 전기상수로 쿨롱상수를 결정하고 전기력(Coulomb force) 계산식.
5)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볼츠만의 상수를 결정하고 플랑크 에너지식.

표3 / 플랑크 단위

플랑크 단위	계산 상수 값
플랑크 길이(l _p)	1.616252 x 10 ⁻³⁵ m
플랑크 시간(t _p)	5.39124 x 10 ⁻⁴⁴ s
플랑크 질량(m _p)	2.17644 x 10 ⁻⁸ kg
플랑크 전하량(q _p)	1.875545870 x 10 ⁻¹⁸ C
플랑크 온도(T _p)	1.416785 x 10 ³² K

(에너지), 플랑크 전하량 및 플랑크 온도 등 5차원의 기본 단위(표3)를 유도하였다.^[1] 여기서 이 기본 단위는 복잡하게 유도된 수식들이 단위가 없는 대수값으로 표현되어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이론 물리학에서 베이스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기본 단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물리 방정식들은 모두 광속이 진공에서 일정하다는 가정과 상대성 이론의 가설들 그리고 공간에서 이상적인 운동을 가정하는 이상기체 이론 등 여러 가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이론 물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 단위 값들이 여러 가설들 위에 세워져있는 것이다. 여기서 각 이론들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바탕을 두고 유도된 값들이 이론물리에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2]



플랑크는 오늘날 입자물리, 즉 양자역학의 초석을 이뤘던 학자로 인정되어 191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당시 과학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플랑크가 발견한 모든 물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물질 상수는 설계상수이며 하나님의 지혜상수라고 할 수 있다. 자연주의 입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수치는 피조물 속에 숨겨져 있는 창조자의 지혜를 드러내는 놀라운 증거이다.

왜냐하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자연주의 입장으로 물질들이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의지적이고 지적인 상수값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플랑크는 무신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초월의 세계에 대하여 늘 관심이 많았던 과학자였음을 문헌들은 증언하고 있다. 그는 물질세계의 신비한 질서와 조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손길을 부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3]

[1] Barrow, John D., The Constants of Nature: From Alpha to Omega – The Numbers that Encode the Deepest Secrets of the Universe, New York: Pantheon Books, Easier, 2002.

[2] Duff, Michael, "Comment on time-variation of fundamental constants", Ar Xiv e-prints, Ar Xiv: hep-th/0208093, 2002

[3] Web: http://adherents.com/people/pp/max_planck.html, "Religion of History's 100 Most Influential People". And web: http://en.wikipedia.org/wiki/Max_Planck.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이재만 회장 한국, 대만, 일본, 홍콩 방문하고 귀국

이재만 회장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위의 네 나라를 방문하며 세미나를 인도하고 귀국했습니다. 기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한국 방문 한동대학교와 헤브론 원형학교(대표 김용희 선교사)뿐 아니라, 한국컴패션(대표 서정인 목사), 아산병원, 일산산성교회(담임목사 유희숙), 햇볼 트리니티 CEO 스쿨, 생터 사역원(대표 이애실), 큰숲 목회자(대표 김인중 목사), 수원성교회(담임목사 안광수), 온누리교회 바이블 아카데미(담임 김승수 목사), 온누리교회 교역자 예배(담임목사 이재훈) 등에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유신론적 진화론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인도한 곳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을 정도입니다. 어떤 곳은 유



생터사역원 전문강사 스쿨(소망교회 수양관)



한국, 바이블 아카데미(온누리교회)



대만, 야류 국립 지질공원 야외실습

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주제만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세미나를 들은 분들은 유신론적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허술하고 성경적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공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시기에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며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발견하는 귀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까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만 방문 이재만 선교사는 2년에 한 번 대만을 방문해서 현지인 대상으로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올해도 2013년에 이어 은혜국제신학교(대표 김광신 목사)에서 11/16-20 닷새 동안 14번의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160명의 사역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대만은 최근 교회가 빠르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3%에서 6%로 증가했다는 현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집회 내내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날 예루 국립지질공원에서 창조과학탐사를 진행했습니다(사진). 이곳은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특히 버섯바위로 유명한 곳입니다. 한 주 동안 실내에서만 들던 내용을 야외에서 직접 보며 확인하는 것은 훨씬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세미나와 현장 실습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역으로 김현희 선교사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일본 방문 일본에서는 11/21-24 나흘간 센다이, 후쿠시마, 도쿄를 경유하며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모든 집회는 일본창조과학회 우사미 미노르 회장과 함께 나누어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센다이와 후쿠시마는 지난 쓰나미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곳이었기에 노아홍수 심판을 다룰 때는 남다른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오는 8월 중순에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합니다. 통역으로 손제현 선교사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홍콩 방문 홍콩에서는 지난 11/28-30 사흘간 홍콩 중앙교회(담임목사 이홍배)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홍콩 중앙교회는 지난 7월 캠페션 팀과 함께 창조과학탐사를 참석했는데 이때 교회 세미나 일정이 잡혔습니다. 교인들은 세미나 내내 진지한 모습을 보였는데 진화론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신앙 전수에 필수적임을 공감했습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 노아방주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방주와 동일한 크기로 제작된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실내가 노아홍수와 방주에 대한 설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전하고자하는 제작자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니시타카 성서침례교회

CGN-TV 녹화 이재만 선교사는 CGN-TV에서 45분간 10개의 주제로 녹화를 마쳤습니다. 주제는 인류의 기원, 종의 기원, 노아홍수 전기, 노아홍수 후기, 노아 방주, 지구의 나이, 창세기 1장, 진화의 반대, UFO, 성경을 믿는 과학자 등입니다. 방송은 지난 11월 19일(목, 한국시간)부터 매주 방송되고 있습니다. CGN-TV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세미나 지난 12월 3일

Glendale Community College에서 예배를 드리는 KCCC Open Chapel(간사:김정덕)에서 노회성 강사가 '창조주 하나님'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캠퍼스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의 신실함이 느껴졌으며, 학생들은 매우 집중하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후 그동안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창조과학사역을 위한 훈련 지난 11월 21일부터 한인 2세대들에게 창조과학을 가르치기를 소망하는 전도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모여 창조과학그룹스터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번의 모임을 가졌으며, 앞으로 6개월간 10번의 모임과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 분들을 통해 각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성경의 역사를 사실 그대로 믿는 신앙이 전수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12월 22일부터 8주간 제 7기 ITCM(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이 진행됩니다. 이번엔 한국으로부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모두 10명입니다. 모든 훈련 사역에 참가하는 분들과 사역의 열매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직적 진화론은

적응, 돌연변이, 자연도태 등으로 단순한 생명체에서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한다는 패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은 변이는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진화론이 극복해야 하는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한 생명체가 새로운 특성 즉 새로운 구조와 기능을 획득하면서 다른 생명체로

변이할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세포 생물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려면 많은 것들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안구와 두뇌 뿐만 아니라 심혈관 계통 등이 필요하죠.

박테리아의 DNA를 조작한다고 해서 인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새로운 특성을 추가해야 합니다.

진화론으로는 그런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 생물이 다른 생물로 바뀌려면 어떤 유전학적 방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때문에 자주 인용되는 발상은 돌연변이와 자연도태입니다.

이런 것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돌연변이의 문제점은 기존의 특성이나 DNA를 변경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DNA나 다른 정보를 추가할 순 없죠.

이미 있는 것의 변경일 뿐입니다.

돌연변이는 변형을 야기할 순 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죠. 생물이 환경에서 적응하게 해주고

같은 종류 내에서도 다르게 변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새로운 특성을 얻어서

다른 생명체로 변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Unlocking the mysteries of Genesis, 생명이란 무엇인가 중에서



최초의 동물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디아카라 “화석들”은 고대의 생물들의 흔적인가, 아니면 단순한 자연적 과정으로 인해서 화석 모양이 생기게 된 것일까? 이러한 자국들을 올바르게 확인하는 것은 에디아카라 암석들 - 세속적 과학자들이 5억 5천만년 되었다고 믿는 - 이 지구에서 최초의 동물들이 나타날 때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과학자들이 과연 소위 모든 동물의 공통조상에 의해 만들어진 화석을 보고 있는 것일까?

가장 최근의 연구는 명백한 답을 분별하기에 충분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리고 동시에 세속적 과학자들은 특수한 창조를 확증하는 증거와 마주하게 된다.

논란이되는 이상한 화석적 특징은 아스피델라(Aspidella) 속의 것이며 동심원의, 둥글거나 타원형의 디스크 모양이다. 대부분은 지름이 몇 인치 밖에 되지 않는다. 세 명의 과학자들은 뉴펀들랜드와 다른 몇몇 지역에서 발견된 이 고대의 화석들에 대한 연구를 했고 지질학 논문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질학 저자들은 아스피델라(Aspidella)의 형성이 유체관(fluid pipe) 혹은 붕괴된 침전물과 같은 자연적 과정으로 인해 생겼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들은 실험실에서 이러한 아스피델라 구조를 재생산해내는 데 실패했고, 이 사실은 그것들이 생물학적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그 연구자들은 아스피델라 자국이 동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 특별히, 오늘날 바다 말미잘이 만들었을 법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연구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가설을 세우게끔 한 단서는 화석 자국의 양상에 있어

몇몇 아스피델라의 디스크들이 부분적으로 서로 겹쳐 있는 것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다. 수중 동물들은 진흙 표면에서 여러 방향으로 옆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일 때 이러한 자국을 남겼다. 그 동물들이 약간 위쪽으로 스스로를 밀어 올렸을 때, 그것들은 이러한 동심원 모양의 고리들을 남겼다.

또 다른 단서는 아스피델라 자국들과 바다 말미잘의 해부학적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얻어진다. 그것들은 일치한다.

갯벌에 사는 현존하는 말미잘들은 몸체 대부분을 얇은 퇴적층 아래에 숨기고 작고 위로 향한 입이 바닷물 쪽으로 열리도록 하여, 작은 먹이를 잡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 폭풍이 그것들 위의 퇴적층 위에 덮친다면, 말미잘들은 짧고 받침대 같은 둥근 다리를 수축한 후, 입을 다시 노출시키기 위하여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 둥근 다리는 에디아카라 아스피델라(Ediacaran Aspidella) 화석들과 같은 모양을 진흙에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질학 저자들의 말에 따르면, “퇴적물의 침전에 의한 미세한 환경



적 스트레스에 재빠르게 반응하는 능력”과 “근육의 수축”을 포함한 “동물의 특징적인 행동”이다.

따라서, 최초부터, 동물들은 이러한 행동을 가능케 하는 신경과 근육, 그리고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들은 언제나 생존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창세기의 말씀대로...

이러한 과학자들이 드러낸 단서들은 오늘날 생존하는 것과 동일한 생명체들이 에디아카라 화석 자국들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 준다. 다음 중 어떤 것이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가: 5억 6천만년 동안의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이러한 진흙에 사는 말미잘에게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최초부터 말미잘들에게 이러한 온전한 장비들을 구비시켰음을 이해하는 것인가?

최초의 동물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생겼다.

References

1. Menon, L. R., D. McIlroy, and M. D. Brasier. 2013. Evidence for Cnidaria-like behavior in ca. 560 Ma Ediacaran Aspidella. *Geology*. 41(8): 895-898.
2. Many Flood geologists generally regard Ediacaran strata, which typically have very few fossils, if any, as sediments deposited during the 1,656 or so years between creation and the Flood.

Brian Thomas, M.S. Article posted on September 16, 2013(<http://www.icr.org/articles/view/7708/268>) / 번역: 이충현

창조과학탐사

간증 / 동산고등학교(1)

7/23-26, 2015



창조과학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진화론이 얼마나 허술하고 억지인지를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패러다임에 갇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을 보고 진화론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 김현서

노아홍수 콘서트를 읽고 창조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책의 저자이신 이재만 선교사님을 만난다는 것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재만 선교사님의 창조과학 수업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알지 못했던 경이롭고 신기한 사실들을 새로 알 수 있었습니다. - 김동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운 창조론적 사실들과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적 생각들이 부딪히면서 큰 혼란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 혼란이 정말 깔끔하게 해결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 송태용

중학교 3학년 때 한창 말도 안듣고 내 멋대로 지냈는데 그때 학교에서는 진화론이 맞다고 배운다고 대든적이 있었다. 미국에 와서 강연을 듣고 보니 그때가 정말 창피하고 지금이라도 맞는 것을 잘 배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김현지

이전의 나의 믿음은 그저 남들이 믿으니깐 왜 믿는지 무엇이 사실인지도 모르는 근거 없는 믿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근거를 알게 되었고 창조론에 대한 확신까지 더불어 얻게 되었다. - 이상현

개인적으로 유신론적 진화론으로 생각했던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연수였던 것 같습니다. - 안형도

저희 가족은 명절 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부터는 명절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창조과학이 비판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무명



편집되지 않은 많은 간증은 Homepage(www.hisark.com)의 "ACT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1-2/17	제 7 차TCM 훈련
1/4-7	창조과학탐사 (17차 유학생), 이재만
1/10	아름다운교회 (노회성), CA
1/11	창조과학그룹스터디 (이재만)
1/17	LA온누리교회 (노회성), CA
1/24	아름다운교회(노회성), CA
1/26-29	창조과학탐사 (대구참좋은교회), 이재만

2/1	창조과학그룹스터디 (이재만)
2/21-27	목포사랑의교회 (이재만), 한국
2/29	창조과학그룹스터디 (노회성)
3/5-6	성광교회 (이재만), 한국
3/19-23	창조과학탐사 (연합팀), 이재만
3/28	창조과학그룹스터디 (노회성)

4/2	창조과학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4/4	창조과학그룹스터디 (이재만)
4/5-12	창조과학탐사 (서울충신교회), 이재만
4/13-19	창조과학탐사 (안양석수교회), 이재만
4/20-30	창조과학탐사 (빛나교회), 이재만
4/25	창조과학그룹스터디 (노회성)
5/2-10	창조과학탐사 (서울드림교회), 이재만
5/13-19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5/14	창조과학그룹스터디 (노회성)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